

# ‘코로나 고통 분담’ 공직자 급여반납운동 곳곳 확산

여주시, 시장 등 8200만원 기탁  
해남군, 직급별 자율적 성금 모금  
보성군, 2억 상당 상품권 구매도  
강진군, 4개월 봉급인상분 반납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2차로 부시장 이하 전 직원이 직급별로 일정금액을 정해 6200여만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여주시 공직자들이 모은 기금은 총 8200여만원에 달한다.

여주시는 급여기부액이 조성되는 대로 시 예산으로 편성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군 공직자들도 3월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해남군과 소속 3개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민중연합노동조합 해남군지부)는 지난 25일 공직자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는 범정부적인 성금모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급여 반납에는 간부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원직,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1200여명 전체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동참을 결정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반납액은 5급 이상 공무원은 3월 급여 인상분인 2.8%를 반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인상분의 1.4% 이내에서 자율적 성금의 형식으로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직은 정해진 비율 없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할 예정으로 총 모금액은 4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때부터 이미 급여 전액을 지역인재양성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는 명현관 군수는 개인 성금의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남 지역 취약계층이나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해 사용할 계획이다.

보성군 공무원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보성군 공무원들은 직급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상 총 2억여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한다. 여기에 2000만원의 성금도 모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보성군 공직자들은 현금으로 지급받던 당직비를 지역화폐로 대체하고 있다.

보성군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도 2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지역경제 살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퇴근 뒤 지역에서 장보기, 지역 농특산물 구입 확대, 공무원 1개·1식당 전담제 등을 운영하며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강진군 5급이상 공무원 37명은 지난 23일 4개월간 봉급인상분을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봉급인상분을 모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블루베리·발효식품 활용 순창군, 건강제품 잇단 출시 프로바이오틱스·청국장완 개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순창 블루베리와 발효식품을 활용한 건강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진흥원은 순창군과 전북도가 추진하는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으로 순창 농·특산물인 블루베리와 콩, 블루베리 발효물,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갖는 토종 유산균 등을 활용해 ‘슈퍼 케이 프로바이오틱스’·‘슈퍼 케이 프로바이오틱스 블루베리 맛’ 2종의 제품과 ‘순창 블루베리 청국장 완’(사진)을 개발했다.

‘슈퍼 케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풍부하고 항산화 활성이 좋은 순창군 아로니아 분말을 8% 함유했으며, ‘블루베리 맛’ 제품은 순창군 블루베리 분말 4%와 블루베리 효모 발효 분말 1% 함유한 제품이다.

‘블루베리 맛’에 첨가된 블루베리 효모 발효 분말은 세포 및 동물실험 등을 통해 면역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냄새는 줄이고 건강은 높은 ‘순창 블루베리 청국장 완’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블루베리와 청국장의 기능성을 더해 변비, 다이어트, 독소 배출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국장을 활용해 냄새가 날 것이라는 소비자 우려도 말끔히 해소했다. 청국장 제조때 냄새를 줄이는 발효미생물을 사용해 이를 보완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전통한옥 숙박 ‘남원예촌’ 서비스 만족 전국 ‘ 으뜸’ 구들 문화·지역관광 연계 호평



‘제14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숙박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한 전통한옥 숙박시설 남원예촌.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컨설팅호텔엔리조트와 함께 운영하는 한옥숙박체험시설 ‘남원예촌’ (by Kensington)이 제14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숙박서비스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은 서비스 품질을 혁신해 온 지자체와 기업의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브랜드협회 등이 제정한 상이다.

남원예촌은 올해 15개 서비스 분야의 총 210개 기관·기업의 치열한 경합을 뚫고 숙박서비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7월 개관한 남원예촌은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는 콘셉트로 건립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인 최기영 대목장과 전통기와 잇기의 대가인 이근복 변화장 등 한옥 명장들이 참여한 전통한옥숙박 체험시설이다.

대표 명품한옥형 호텔답게 자연친화적 소재와 옛 선조의 지혜를 담은 순수 고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한국 전통가옥 난방인 구들장문화를 선보이고, 전통정원(광한루원)·판소리·전통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을 연계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마패

서비스’와 일대일 버틀러 서비스인 ‘초롱불 서비스’도 인기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원예촌과 남원 지역의 관광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남원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며 “시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관광전략과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서해상 주꾸미 불법조업 기승...군산해경, 하루에만 4척 적발

군산 앞바다에서 주꾸미잡이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2.8t급 주꾸미잡이 어선 선장 박모(56)씨를 ‘공기호 부정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불법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본인 소유(1.6t급)의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해경 형사기동정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1시간가량 도주했다가 비응항 내에서 붙잡혔다.

같은날 오후 3시26분께 옥도면 연도 남서쪽 약 11km 해상에서도 조업 금지기간 그물(조망)을 사

용해 주꾸미를 잡던 7.9t급 어선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장을 개조한 뒤 실제 조업한 어획물은 선실 아래 비밀 어장에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9.7t급 총남어선이 조업 허가구역 위반 내용으로 해경에 단속되는 등 주꾸미 불법조업이 이날 하루에만

4건에 이른다.

군산해경은 최근 어선표지판을 바꿔달거나 어장을 개조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파출소에 항·포구를 순찰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획량이 줄어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5월11일부터 시작되는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 전 씩씩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익산시-전북개발공사 협약

### 하루 50대 이용 수소충전소 설치

익산시 석양동에 하루 50대의 수소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수소충전소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비 15억원, 도비와 시비 7억5000만원씩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수소충전소는 하루 50대(250kg/일)의 수소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수소충전소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정에너지 사용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익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